

電子工業의 里程標를 세워주길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지금까지 政府의 輸出 戰略産業으로서 量的으로 상당한 伸張을 해 왔을 뿐만 아니라 質의으로도 持續的인 向上을 해 온 것이 事實이다.

특히, 1981年末에 컬러TV의 市販許容 및 放映開始를 契機로 하여 電子工業의 活性化 뿐 아니라 關聯産業에까지도 상당한 波及效果가 期待되는 바이다.

그러나 1979年 2/4分期 以後 景氣後退에 들어선 우리나라 全体景氣가 1980년에는 沈滯局面에 놓여 經濟成長이 마이너스 5.6%라는 뜻하지 않은 結果를 招來하게 되었다. 즉 國內의인 政治 및 社會混亂으로 인한 國內景氣의 沈滯 뿐만 아니라 國際原油價의 대폭적인 引上 및 主要 原資材 價格의 急騰으로 인하여 世界經濟의 不況이 더욱 深化됨에 따라 先進各國들이 다투어 保護貿易主義를 強化하고 있고 資源國들은 賦存 資源保護政策을 내세우고 있으며 後進國들도 高度經濟成長政策을 推進하고 있기 때문에 國內 賣出 및 輸出의 不振이라는 最大의 試鍊을 겪었던 것이다.

이제, 80年代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여 企業의 體質改善 및 技術開發을 통하여 生産原價를 切減하고 國際競爭力을 強化하여 過去와 같은 政府의 過剩保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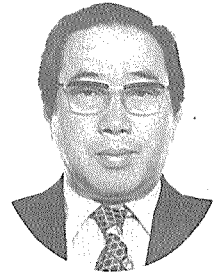
에 의한 安逸한 成長을 과감히 脫皮하여 持續的인 高度成長을 達成하도록 다음과 같은 努力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企業의 體質改善을 통해 經營의 合理化를 이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企業은 지금까지는 政府의 輸出드라이브 政策에 따라 70年代 우리나라 經濟의 高度成長을 이룩하는데 主導的인 역할을 한 것은 事實이나 이와 더불어 金融特惠에 의한 문어발式 系列化를 追求하여 經營의 內實을 기하기 보다는 量的膨脹에만 급급한 結果 지난번과 같은 國內外的 景氣沈滯에 當面하여 스스로 當面問題를 해결하지 못하고 政府의 지원만을 要求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새 時代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政府의 過剩保護에서 脫皮하여 經營의 合理化를 통하여 自生能力을 強化해야 한다.

둘째, 技術開發을 통한 品質의 高級化를 이룩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先進諸國에 비해 일반적으로 施設規模가 척을 뿐만 아니라 單位生産 코스트가 높은 實情으로서 品質의 劣等, 技術不足 등의 問題點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當面問題를 극복하여 國際競爭力을 強化시키기 위해서는 高級技術人力의 確保 및 果敢한 技術投資가 先行되어야 한다.

☆ ☆ ☆ ☆ ☆



大韓電線株式會社
代表理事 崔 亨 奎

세계, 積極的인 마케팅活動을 통한 輸出市場의 多邊化를 이룩해야 한다. 최근 先進各國의 保護貿易主義와 後進國의 高度經濟成長의 政策 등으로 既存 輸出市場에서의 持續的인 輸出伸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市場의 開拓, 海外現地合作法人의 設立 등 積極的인 마케팅活動이 要求된다.

넷째, 同一業種 企業間的 過剩競争을 止揚하여 相互發展을 도모해야 한다. 國內外市場에서 優位確保를 위한 무리한 販賣戰略 및 競争으로 인하여 國內的으로는 消費者의 慾求를 充足시키기 보다는 消費者의 需要를 強要하므로써 企業에 대한 不信을 유발시키게 되었고 國際的으로는 바이어의 농간에 의한 덤핑을 自行하여 國家적으로 크나 큰 損失을 가져왔던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電子業界의 發展의 成長을 위해서는 健全한 競争을 통한 質의 向上으로 消費者의 信賴를 회복하고 輸出品의 덤핑防止 및 信用있는 바이어의 確保가 要求된다.

다섯째, 電子部品の 開發 및 部品業界의 大型化를 통한 部品の 量産化, 專門化體制 確立과 品質의 高級化, 均一化를 이룩해야 한다.

電子製品의 高級化, 量産化 및 製造原価의 切

減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部品에 대한 技術導入 및 研究開發投資의 促進에 의한 部品開發 및 部品業界의 大型化, 系列化를 통한 施設擴充 및 自動化에 의한 部品の 量産化, 專門化 體制를 이룩하여 高品質化 및 코스트 切減을 하도록 部品業界의 發展이 併行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持續的인 成長을 위해서 政府의 政策支援 및 勞使協力이 절실히 要求된다. 80年代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電子工業은 그동안 企業의 急速한 量的成長, 原資材價格의 急騰, 政府의 強力한 價格統制 및 每年 累積된 高率의 賃金引上 등으로 우리 電子業界는 内部留保가 거의 없는 實情이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는 技術投資 및 施設擴充 등에 必要한 財源의 確保가 커다란 問題點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國際競爭力을 強化시켜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發展의 成長을 持續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1980年 11月 8日 景氣浮揚對策과 같은 多角的인 支援이 要求되며 勞使協力 體制를 確立하여 相互發展을 이룩해야 한다.

“電子振興”誌 創刊을 契機로 1980年代의 福祉國家 建設에 앞장서서 우리나라 電子工業의 里程標로서의 役割을 기대하며 電子工業과 더불어 貴誌의 무궁한 發展을 祈願한다.